

범 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써 1社1村운동의 배경과 현황



김재기 팀장
농협중앙회 농촌사랑추진기획단

農村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농촌은 기업과도 같습니다. 만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렇듯 싼 임금과 넓은 땅을 찾아 많은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해 감으로써 기업의 공동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농촌과 농민들도 힘들다는 이유로 땅을 떠나 농촌이 공동화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국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농촌과 농민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했던 근대화 초기와 산업화의 후반기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당시 농촌은 우리 국민들에게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1社1村운동은 국민통합 운동이자 나라사랑 운동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상생을 위하여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1社1村운동은 농업인

과 도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도농 상생(都農相生)운동이며 계층간 지역간 거리를 좁히는 국민통합운동이자 나라사랑 운동입니다.

특히, 1社1村운동은 농업·농촌이 지니는 한계성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2만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운동인 것입니다.

현재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촌사랑 1社1村 운동의 추진배경은 FTA, DD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농촌이 공동화되어 농업·농촌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던 '03년도에 도시와 농촌이 相生할 수 있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문제가 농업자체의 문제가 아닌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하여 농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함께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그 실천사업으로 1社1村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농업·농촌은 상대적 박탈과 희생을 감내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제 도시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농촌에 기업과 도시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1사1촌 운동은 과거 유사운동의 일방적인 농촌지원과는 달리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村(촌)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잘 가꾸어 기업과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1社(사)는 기업이나 단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사업을 전개하여 농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사1촌운동을 과거 새마을운동과 비교한다면, 새마을운동이 보리고개를 극복하여 국민모두가 잘 살아가 보자는 관(官)주도의 운동이었다면, 1사1촌운동은 고령화와 농가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민간차원에서 돕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 보존하는 순수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이자 나라사랑운동인 것입니다.

1社1村운동을 통하여 농촌은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기업, 정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봄 조성에 힘입어 금년도부터는 확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준 덕택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

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사1촌 자매결연은 일방으로 지원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임직원을 비롯한 도시민이 농촌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해질 수 있는 도농상생(都農相生)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사1촌 운동을 통하여 먼저 농촌의 어려움을 기업과 단체, 기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 주고, 잊혀져 가는 농촌문화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전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농촌은 활력을 되찾고, 농도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추진현황 ('05. 8월말 현재)

(단위:건)

기업체	소비자 단체	사회종교 단체	관공서 등	기타	계
3,264	579	302	792	1,531	6,468

기업, 정부부처,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05년 8월말 현재 6,468건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매일 평균 14쌍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농교류 기반구축에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자매결연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1사1촌 운동의 발전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의 참여도 20곳을 넘어 서고 있어 이 운동이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참여현황〉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금융감독원, 중앙인사위원회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성과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등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이 과거에 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도농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운동이 농촌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운동으로서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도 중요하였지만 질적인 측면도 강조되어야 하고 내실있는 운동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에서는 1사1촌운동 내실화를 위하여 농촌사랑관리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규모화되고 내실있는 교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과 농촌이 상호 필요에 의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사1촌운동을 현장에서 전파하고 실천하는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1사1촌운동을 선도할 핵심지도자'로 육성하여 마을지도자에게 준비된 농촌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고 나아가 농업인이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과 농촌을 동시에 파는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실천운동가로 대거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운동을 통하여 도농이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은 도시를 사랑하고 도시는 농촌을 사랑할 때 1사1촌 운동은 국민모두의 행복한 운동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